

# 여수영취산진달래축제, 4년만에 열린다



여수 대표 봄꽃 축제인 '영취산진달래축제'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린다.

### 4월 1~2일, 흥국사 산림공원 및 영취산 일대 산상음악회·진달래 꽃맵시 선발대회 등 다양

여수시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2일까지 흥국사 산림공원 및 영취산 일원에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축제'라는 주제로 '제31회 영취산진달래축제'가 개최된다.  
4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행사규모를 확대하고 자연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등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해진다.  
축제는 1일 오전 11시에 흥국사 산림공원에서 펼쳐지는 산산제로 시작하며 오후로 이어지는 개막식에는 유명인의 축하공연이 열린다.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기자랑을 진행하는 '진달래 꽃맵시 선발대회'는 행사장의 흥을 한껏 돋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진달래 군락지 봉우재에서는 자연 속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적인 산상음악회와 진달래를 주제로 한 화전 부치기,

꽃길 시화전, 캘리그래피, 플로깅 등 각종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오재환 (사)여수영취산진달래축제보존회 이사장은 "올해도 여수시와 협업해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흥국사 경유 시내버스 노선 증편, 행사장 내 차량 출입 제한 등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울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19년 이후 첫 대면행사인 만큼 교통·질서 유지 등 안전에도 힘쓰겠다"라며 "봄꽃 향기로 가득한 여수에서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 순천시, 평생학습도시 20년 새로운 중장기 비전 제시 새로운 도약의 3대 키워드 '가치기반, 교육협력, 온마을배움'

순천시는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11년 다른 도시보다 한발 앞서 순천시 문화건강센터를 개관하여 평생학습을 위한 독자적인 기반 시설을 갖추고, 전국 최대 규모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제1회 전국 평생학습도시 대상 수상, 전국 유일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2회 유치 등 지난 20년간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로 자리매김해 왔다.  
최근 평생학습도 새로운 정책, 사회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순천시는 시대적 트렌드에 맞추어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온마을배움터 미래교육자치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 ▶ '교육협력' 부서 및 시민사회 협력, 전 생애적 접근에서의 교육융합

시는 지역을 이끄는 로컬인재 육성을 위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전 생애적 모든 교육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교육협력심무협의체'를 통해 돌봄, 자치, 농촌, 생태 등 교육적으로 연계한 사업을 개발하고, 마을의 공간을 중심으로 아동, 청소년, 성인의 교육이 통합된 배움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시는 대외협력팀을 신설하여 대학협력 강화와 청소년 교육정책 전담을 통해 학교, 대학, 시민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전 생애 교육 인프라를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대학은 인구 급감에 따라 경쟁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대학과 지역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의 다양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학령기 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 전문인 연수과정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경직적 2·4년 학위과정뿐만 아니라 지역평생학습 요구를 반영한 마이크로디그리(9~15학점 이수 단기학위과정)모델을 개발하는 등 지역의 교육거점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 '가치기반' 생애전환, 지역성, 공동체 회복 등 품격있는 시민 교육 강화

순천시는 평생교육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공동체회복,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가기 위해 존중과 소통, 공동체 관심과 실천, 생태적 삶, 문화예술 향유, 배움과 나눔 등 우리 지역의 스토리와 자부심을 높이는 것을 평생교육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2023년부터 인생의 중요 생애 전환기별 특화교육을 추진한다.  
마을학교, 사람, 공간, 콘텐츠를 연결한 청소년 진로 프로젝트 '쉽표학교', 신중년·노년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환대를 경험하고 제2의 인생 방향 설정을 돕는 '50+인생학교'를 계획하고 있다.

각 분야 명강사를 초청하여 대규모 특강 위주로 운영하던 순천사람아카데미는 자치, 재생, 사회적경제, 기후위기, 돌봄 등 주제별 공론장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시민전문가를 육성하는 '커뮤니티형 아카데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문해자, 장애인 평생교육 등 학습소외계층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운영방식도 산관학 협력, 시민주도 웨디이클래스, 영상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다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 ▶ '온마을배움' 근거리 배움터 확대, 도시에서 마을까지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순천시는 기존 평생학습관에 집중되어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생활 근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거점 평생학습센터를 발굴·지정하여 온마을 배움 근거리 배움터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여성문화회관, 인생이모작센터, 선비문화체험관, 저전비타민센터, 별량별빛나루 등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통합 관리·모집한다. 또한 돌봄, 주민자치, 평생교육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복합 교육거점으로 육성하고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일부 공간을 평생학습 공간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배움터를 육성하는 등 시민주도의 강좌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양시, 어업인 소득향상 위한 수산 유통·가공 분야 지원

### 안정적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과 경쟁력 강화 취지...22일까지 접수

광양시는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2023년도 수산 유통·가공 분야 어업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수산 유통·가공 분야 지원사업은 ▲수산물 소포장제 등 지원사업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수산 분야 농사용(을)

전기요금 지원사업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수산물 HACCP 기준 시설업체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지역 특산물 고부가가치화와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오는 22일까지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해 광양시청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필

요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병기 해양수산팀장은 "급변한 수산 식품 시장변화에 대응하고 소비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시 지역 수산특산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규사업 신청과 발굴에 힘써 지역 특화 맞춤형 지원으로 수산 유통·가공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 고흥군, 청소년문화의집 특별 프로그램 운영 큰 호응

고흥군이 운영하는 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 10일간 '청소년의 슬기로운 생활, 감성과 꿈을 키워내다!'라는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개학 시즌을 맞아 지역 초·중·고 학생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스키 캠프, 가상현실을 보다 3D VR영상체험, 나만의 유리컵 무드등 만들기 체험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청소년과 가족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창의적 체험 활동의 기회를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보성군, 2023~2024년도 해양수산사업 수산조정위 개최

보성군은 지난 10일 2023년~2024년도 해양수산사업 심의를 위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보성군 해양수산사업 예산 신청금액은 국·도비를 포함한 25종 45건 1,373억여 원 규모이다. 이는 전년도 심의 의결 사업비 319억보다 1,054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2023년도 사업으로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18종 28억여 원의 사업을 확정했다. 또한, 2023년 어장정화정비 실시계획(160건 773ha), 2023~2024년 어장·면허양식장 이용개발계획(22건 243ha) 등을 검토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심의를 통과한 예산안을 오는 27일까지 전남도를 경유해 중앙부



처에 발송하고, 중앙부처에서 최종 예산을 배정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과 해당 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내 삶이 행복한 광산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가정폭력, 성폭력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